

문학 번역과 번역사¹

장들릴(Jean Delisle)

캐나다 왕립학회 회원, 오타와대학교 명예교수

좋은 방법론만 있다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장애는 없다.

- 보나파르트(Bonaparte)

지난 5월, 루마니아 웨스트 티미쇼아라 대학교(『Université de l'Ouest de Timisoara』)가 개최한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아 줄저 『번역 방법론 *La traduction raisonnée*』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바 있다. 그 저서에서 다루는 개념들은 1978년 파리 제3대학(또는 소르본누벨대학교 『Université Sorbonne Nouvelle』) 통번역대학원 (ESIT) 박사 논문²에서 다루었던 것이었다. 2년 후에 책으로 출판된 이 논문은 후에 일부분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페르시아어, 터키어로 번역 출판되어 갑작스런 국제적 명성에 저자로서 무척 놀란 적이 있다.

다시 강연으로 돌아와, 그 강연에서는 번역을 전공하는 학생에서 번역가, 감수자를 거쳐 오타와대학교(『Université d'Ottawa』) 교수가 되기까지의 행로를 언급하고, 번역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교육의 일반적·구체적 학습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밝혔다. 물론 여기에서 그 강연 내용을 다시 반복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번역 교육이 번역에 필요한 요령들을 모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교육이란 전문적 행위와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 두 가지의 합치를 의미한다. 목적지로 올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인 만큼 학습 목표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 목표 설정의 주된 이점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¹ 이 논문은 장들릴 교수의 이대 통번역대학원 BK 전문인재양상특화 사업단이 주최한 2014년 12월 8일 박사과정 특강 원고입니다.

² 『번역의 방법으로서 담화분석 *L'analyse du discours comme méthode de traduction*』 오타와대학교 출판부 1980년, p.282

1. 교수로 하여금 체계적인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교수와 학생 간, 교수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3. 번역 교육 자료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서적,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같은 여러 전문적인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4. 다양한 학습 활동이 가능하다.
5. 구체적인 학습 목표는 총괄평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평가의 기반을 마련해준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번역 세미나에 있어서 학습 목표 설정은 건물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학습 목표의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필자의 『번역실무교육 *L'enseignement pratique de la traduction*』³을 추천한다.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문학 번역 교육에서의 적용

다음으로 언급할 것은 루마니아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한 방법론을 문학 번역 교육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내면에 잠들어 있던 역사학자를 깨워 번역사의 여러 개념들이 문학 번역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려 한다. 지난 금요일, 세계번역가대회 기조강연에서 이미 역사주의, 역사성, 능동적 재번역, 수동적 재번역과 같은 일부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어떤 이론서도 번역가의 재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문학 번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을 통해 올바른 번역 방법을 배우고, 학습 목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번역이론과 번역실무는 심각한 불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둘의 간극을 없애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짚고 가겠다. 우선, 학습 목표에 충실한 교육 방법을 권장하는 입장이지만 번역 교육을 위해서 다른 좋은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제각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내가 죽은 후에 대홍수가 오든 말든’이라던 루이 15세의 말처럼 무책임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방법론’(raisonné)이라는 제목 때문에 여러 가지 번역 요령이 이 책에 정리되어 있어서 요리책처럼 그냥 따라 하기만 하면 번역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1751년에 출간된 디드로(Diderot)의 유명한 『백과전서』에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책의 부제는 ‘학문, 예술, 기술에 관한 방법론적(raisonné) 사전’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구체적인 예시와 논증을 바탕으로 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드로와의 비교는 이 정도로 하겠다. 이제 번역 교육의 메타언어(métalangage) 개념부터 살펴보자.

메타 언어

진정한 대학 교육이라면 마땅히 인상주의적이거나 모호한 개념들을 배격해야 할 것이다. 번역학을 위해서는 번역교육의 엄격함에 맞는 개념적 도구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적절한 용어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번역 현상에 대한 구조화된 담론을 펼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번역 방법론 *La traduction raisonnée*』의 초판(1993년)에 수록되었던 전문용어집은 이후 전문용어학자들의 공동작업으로 개정되어 1999년 『번역용어집 *Terminologie de la traduction*』⁴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용어집은 총 4개 언어(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로 기술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12개 언어로(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출판-역주) 번역⁵되었다. 번역 교육에서 다루는 기본 용어가 12개 국어로 번역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용어집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³ 『번역실무교육 *L'enseignement pratique de la traduction*』 오타와대학교 출판부 2005년, p.280

⁴ 장들릴(Jean Delisle), 하날로레 리얀케(Hannelore Lee-Jahnke), 모니크 코르미에(Monique C. Cormier) 공편, 『번역용어집 *Terminologie de la traduction*』, 존 벤자민스 출판사(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1999, p.433.

모든 학문에서 고유의 용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개념화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학문이 상당한 발전단계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어떤 학문이든 고유의 개념이 정립된 후에야 비로소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점은 다른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번역과 번역 교육에도 적용된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번역 교육을 위한 전문용어집 발간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당시 캐나다 대학가에서 번역학은 학문으로의 기틀을 잡고, 다른 주변 학문과 견주어 학문적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던 시기였다.

마침내 번역 교육이 언어학, 문법론, 문헌학, 문학, 외국어를 지도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번역학이 여러 학문의 교차점에 있는 학문이라는 하지만 그 자체로도 충분히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번역학의 세 가지 하위 범주(번역이론, 번역 역사, 번역 교육)에서도 전문용어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20여년 전부터 번역학의 연구 대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교육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연구들, 그리고 관련 석·박사 과정의 등장은 번역학의 독립성이 증가함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로 사료된다.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학문은 쇠퇴하기 마련이다.

위에서 언급한 『번역용어집』은 8개국 20여 명의 교육자와 전문 용어학자가 참여한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해 탄생했다. 공동연구팀은 번역실무 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본 용어 정립에 주안점을 두었다. 『번역용어집』에는 번역 학습 및 교육에 가장 필요한 200개 정도의 개념들이 집약되어 있다. 하지만 번역학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총망라된 것은 아니다. 번역실무 교육에 초점을 두었을 뿐 번역이론이나 역사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용어집 외에도 번역이론에 관한 용어사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출간된 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마크 셔틀워스(Mark Shuttleworth)와 머이라 카워(Moira Cowie)가 집필한 『번역학 사전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1997』과 주세페 팔룸보(Giuseppe Palumbo) 교수가 쓴 『번역학에서의 핵심용어 *Key terms in translation*

studies, 2009』⁶가 있다. 그리고 모나 베이커(Mona Baker)가 책임 편집한 『번역학 백과사전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이 1998년에 초판 출간되었고, 2006년에는 개정판이 나왔다. 이 책에는 수많은 이론적 개념이 집약되어 있다. 또한 『통역학 백과사전 *Routledge Encyclopedia of Interpreting Studies*』은 2015년에 출간 예정인데, 프란츠 피히하커(Franz Pöchhacker) 교수가 이 책의 집필을 총책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브 강비에(Yves Gambier) 교수와 룩 반 도어슬레어(Luc van Doorslaer) 교수는 2009년 번역 연구에서의 메타언어를 다룬 『번역학에서의 메타언어 *The Metalanguage of Translation*』를 공동저술해 ‘존 벤자민스(John Benjamins) 출판사’에서 출간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번역사의 개념을 전문적으로 다룬 사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번역사 개념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몇 해 전부터 번역사 개념 사전을 준비중이다. 최근에는 오타와대학교 동료인 레니에 그뤼트만(Rainier Grutman)을 이 프로젝트에 합류시키기도 했다. 특정 학문의 메타언어는 그 학문의 구성, 중심 방향, 사조, 관련된 논쟁을 잘 보여 준다. 또한 번역학 연구와 번역 교육에서 역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에 번역사 용어집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번역사 전문 어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있다. 또 약 50여 년 전부터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는 번역사 교육에 관한 어휘들도 이 분야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연구와 더불어 많은 학술어와 신조어들을 등장시켰다.

집필진은 이 용어집이 번역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한 메타언어의 근간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용어집에 포함될 용어들은 번역에 있어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선정될 것이다. 학자들을 예로 들면, 앙투안 베르만(Antoine Berman), 폴 샬비(Paul Chavy), 리벤 뫼스틀(Lieven D'hulst), 에핌 에트킨드(Efim Etkind),

⁵ 아프리카스어[역주: 네덜란드 계 남아공어], 아랍어, 중국어, 핀란드어, 갈리시아어[역주: 스페인 북서쪽의 로만계열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터키어 [역주: 한국어판 『번역용어집 *Terminologie de la traduction*, 존 험블리, 제프리 코비, 수 엘렌 라이트 공저; 장들릴 (Jean Delisle), 하날로레 리안케(Hannelore Lee-Jahnke), 모니크 코르미에(Monique C. Cormier) 공편, 한국문화사, 2005]

⁶ 영국/뉴욕, ‘컨티누움(Continuum)’, 2009, V-II-211 p. V. ‘타겟(Target)’ [역주: 번역학 국제전문학술지에 실린 앙리 블뢰멘의 신랄한 비평 (la recension très critique d’Henri Bloemen dans Target)’, vol 25, n°2, 2013, p. 227-280]

장 르네 라드미랄(Jean-René Ladmiral), 앙리 매쇼닉(Henri Meschonnic), 조르주 무냉(Georges Mounin), 앤소니 뎀(Anthony Pym)이 있다.

번역사 전문 어휘에서 ‘도착론’, ‘출발론’, ‘투명 유리’, ‘채색 유리’, ‘부정한 미녀들’, ‘낮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같은 문학적 요소가 있는 다채롭고 은유적인 표현들은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지시어들은 번역사의 개념 범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번역 역사가들이 선호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문학은 번역사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메타언어가 은유적인 문학담론이어서 안되리라는 법은 없다.

사전의 제목은 현재 임시로 ‘번역사 속의 개념들(Notions d’histoire de la traduction)’이라고 정해 두었지만, ‘개념으로 살펴본 번역사(Histoire de la traduction par les notions)’도 고려중이다.

다음으로 번역사, 더 정확히 말해 번역사 개념이 왜 문학 번역 교육에 있어 유용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문학 번역 세미나에서의 교수법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문학 번역: 교수법 적용

『번역 방법론 *La traduction raisonnée*』을 출간하면서 일반 번역 교육에서 학습 목표에 따라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했다. 『메타 *Meta*』 통번역 학술지에 전문 번역 - 당시에는 경제 번역⁷ - 세미나에서 이 방법론을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 기고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문학 번역의 경우는 어떠한가? 석사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체계화된 문학 번역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고찰의 결과를 본고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강의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교수의 직무 중 가장 창조적인 일이라

고 늘 생각해 왔다. 개인적으로도 지켜온 시험답안 채점과는 달리 창조성을 심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즐거운 일이다. 이제 문학 번역 입문 세미나의 몇 가지 목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대략적으로 살펴본 뒤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겠다.

문학 번역 세미나

목표 1 역사적으로 존재한 두 가지 번역 방식을 구별한다.

목표 2 번역사의 주요 개념을 정의한다.

목표 3 실용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를 구별한다.

목표 4 번역 전략(프로젝트)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한다.

목표 5 번역·재번역 비평의 기초를 배운다.

목표 6 문화소의 개념을 정의하고 설명한다.

목표 7 어휘망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목표 8 활은유와 은유망에 대한 예를 든다.

목표 9 문체적 효과를 주는 반복법의 예를 든다.

목표 10 다양한 언어 사용역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목표 11 부조화 개념을 정의하고 설명한다.

목표 12 인명(人名)과 지명(地名) 처리 문제를 제안한다.

목표 13 역주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목표 14 문학 번역가의 직업 현실을 기술한다.

문학 번역 교육을 위해서는 역사적인 접근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발언에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위의 목표 1, 2번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번역사를 다루는 세미나의 유익함과 그 효용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⁸ 학생들은 과거의 번역가들이 번역에 대해 가졌던 사유들을 접하면서 번역 기술이 여러 세기를 거

⁷ 경제번역 입문(L’initiation à la traduction économique) Meta, vol. 33, no 2, 1988, p. 204-215. 『번역 실무 교육 L’enseignement pratique de la traduction』에 재수록, Ottawa,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Ottawa, 2005, p. 187-203.

⁸ 리벤 뵈스트(V.Lieven D’huylst), 『번역학 교육: 대상과 목적 Enseigner la traductologie: pour qui et à quelle fins』, Meta, vol. 39 n.1 1994, P.8-14

치며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배울 수 있다. 이로 인해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 및 비판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번역 기술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졌다. 적어도 서구사회만 놓고 보면, 19세기의 번역은 중세 혹은 17, 18세기의 번역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었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출간된 두 권의 책을 주요 참고 도서로 추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주디스 우즈워스(Judith Woodsworth)와 공저한 개관서 『역사 속의 번역가들 *Les traducteurs dans l'histoire*』⁹의 3판이다. 영문번역관 제목은 *Translators through History*¹⁰이다.

두 번째는 미셸 발라르(Michel Ballard)의 『번역의 역사적 문화적 지표들 *Histoire de la traduction. Repères historiques et culturels*』¹¹이다. 교육적 가치가 명백한 이 저서는 번역사의 지평도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¹² 고대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번역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저자는 '대체로 유럽을 중심으로 다뤘고,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언급했다.'¹³라고 밝히고 있다.

역사 속의 두 가지 번역 방식

역사 안에서 번역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번역 비평의 몇몇 주된 개념들과 친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역사 속의 두 가지 번역 방식'이라는 도표를 보면 번역에 대해 복잡하게 얽힌 주요 용어들의 정의가 명확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도표 덕분에 가능한 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논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분야의 메타언어와 친숙해지면서 동시에

중요한 개념들을 익힐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인 셈이다.

역사 속의 두 가지 번역 방식

	목표 언어주의	출발 언어주의
번역가의 지향점	작품의 자국화 (이타성 배제)	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혼질성 허용)
추구하는 이상	도착어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충실성	출발어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충실성
제약	1) 제도, 2) 언어적 관습, 3) 담화, 4) 언어, 5) 원문 독사(Doxa)	
번역 방법	의역 관용어 번역, 바꾸어 말하기, 모방 등	직역 축어역, 모사 번역 등
언어사용역	1) 출발어의 특성 2) 대표적인 시대적 배경 3) 문화적 사건들을 배제하고 작품을 번역	1) 출발어의 특성 2) 대표적인 시대적 배경 3) 문화적 사건들을 작품과 함께 번역
번역 과정	역동적 등가 번안, 보상, 완곡한 표현(우언법) 등	형태적 등가 차용, 아케이즘(의고주의), 모사 등
번역 효과	자민족 중심적 번역 (병합적 번역) (친숙하게 번역하기)	이국화 번역 (탈중심적 번역) (낯설게 번역하기)
번역 종류	투명 유리(의역)	채색 유리(직역)

정의

제약

'제약'은 번역가가 의식하든 않든 상관없이 원문 독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번역 결과물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뜻한다. 문화권을 막론하고 번역 작업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몇몇 제약 아래 놓이게 된다. 중요도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각종 기관들 : 교회, 후원사, 지원기관, 검열기관, 편집자 등. '기관'이라는 말 자체

⁹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3è éd. 2012, XXV-335p

¹⁰ Québec,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3è éd. 2014, XXII-377p

¹¹ 미셸 발라르(Michel Ballard), 『번역의 역사 *Histoire de la traduction*』 Bruxelles, De Boeck, coll., 『번역부문 *Traducto*』 2013, p234

¹² 모든 장의 마지막 장에는 '총괄하기'용 정리 요약, '더 깊이 알기'용 전문 서적의 주제별 참고 문헌, '습득 지식을 테스트하기'용 각 장별 내용에 대한 질문 코너들이 실려 있다.

¹³ 미셸 발라르(Michel Ballard), op. cit., p7

가 부정적으로 취급되고는 하는데, 이는 각 기관장이 특정 작품의 번역을 금지하거나 번역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번역가에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2. 언어적 관습 : 그 중 일부는 각 문화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언어를 초월하는 사항들도 존재하기 마련이다(예: 문학 장르).
3. 담화 : 작가나 번역가, 번역물의 수용자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지식과 그렇지 않은 지식을 망라한다. 직역, 차용, 번역자의 머리말이나 후기 등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는 단계이다.
4. 언어 : 문체, 문장의 특색, 언어적 다양성, 사투리, 개인어 등을 고려하는 단계로, 과거의 번역 이론가들은 이 제약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다.
5. 원문 : 원문은 다른 모든 제약들이 실체화되는 장이다.

번역가들에 따라서 이 제약의 중요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주로 번역가 자신이 속한 문화와 사회적 계급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을 보인다. 제약이 보이는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번역가들은 번역 연구의 대상이 된다.

독사(Doxa)

그리스어로 의견, 견해, 감상, 믿음을 뜻하는 독사(Doxa)는 특정 시기의 한 사회(문화)에서 공통적·집단적·주도적으로 행해지던 사유의 방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당시 용납되던 발상, 신조, 신앙들 혹은 거부되거나 무시되던 사항(예: 양성평등, 정교분리 원칙)까지 해당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독사는 번역 역사와 문학 번역에 있어 매우 핵심적 사안이다. 번역가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상징기호들을 전달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발언권을 제한받기도 한다.

문학 텍스트의 본질

세 번째 목표는 문학작품과 기타 실용 텍스트(경제연구보고서, 행정 혹은 법률 서식 등)의 차별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초강연에서 이미 다룬 바 있으므로 재론하지 않겠다. 다만 이러한 실용 텍스트에 있어 미학적인 측면은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은 전제해 둔다. 반면 ‘살아 있는 완전한 유기체’인 문학 텍스트에는 매우 비

중이 큰 부분이라 하겠다.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Marguerite Yourcenar)의 탁월한 표현에 따르면, 문학 번역가는 ‘이야기의 길잡이’¹⁴다. 기술 번역가와 달리 문학 번역가는 작가의 담화에 기반해 새로운 창조물을 내놓는다. 로리 생마르탱(Lori Saint-Martin)은 이러한 협업을 ‘번역이란 작품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또 하나의 길을 창조하는 것이다.’¹⁵라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문학 번역 세미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문학 작품과 실용 텍스트들의 차이는 먼저 강조해 두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이제 세미나 진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우선 목표들을 짚아보려 한다.

번역 프로젝트 진행 전략

번역가는 주어진 작품의 목적에 따라 작업 시 적용할 지향점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는 방식, 즉 ‘번역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번역가 자신의 ‘번역 진행 프로젝트’라 하겠다. 이 프로젝트는 원문 텍스트를 다루면서 번역가가 거치게 될 과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순한 의미의 번역 ‘의도’와는 다르다.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번역 작업을 하면서 순간순간 내려야 하는 결정 사항들과는 구분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번역가는 ‘정숙한 추녀’가 될 수도, ‘부정한 미녀’가 될 수도 있다. 상황에 맞추어 번역 전략을 적용하거나 글자 그대로 옮기기도 하며, 아예 장르를 바꾸거나 대상 독자층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텍스트를 변형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은 매우 다양해서 가늠이 불가능할 정도다. 통속적인 글이 나올 수도 있고, 지극히 계몽적이거나 학술적인 글이 나올 수도 있으며, 각주가 난무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아닉 샵들렌(Annick Chapdelaine)과 질리안 란-메르시에(Gillian Lane-Mercier)¹⁶의 기획 아래 출간된 『포코너를 다시 번역하다』라는 문헌은 번역 프로젝트를 가장 체계적으로 언급했다고 생각하는 글 중 하나이다. 몬트리올대학교 언어번역학부의 주디스 라보아

¹⁴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Marguerite Yourcenar)가 기 뒤뮈르(Guy Du mur)에게 보낸 편지 중 (1952. 12. 08).
Andrée Lerousseau, *Des femmes traductrices*, Paris, 2013, L' Harnattan p.64

¹⁵ *De la traduction littéraire comme plénitude*, Spirale 2014, 249호 p.59

¹⁶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p.186

(Judith Lavoie) 교수가 발표한 마크 트웨인(Mark Twain)¹⁷의 대표작 『허클베리핀의 모험』 번역본에 대한 논문도 마찬가지이다. 라보아 교수에 따르면 연구 대상이었던 7가지 번역본은 제각기 다른 계획에 바탕을 두고 마크 트웨인의 작품에 독창적인 색을 부여했다. 즉 이 번역본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문 변형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번역가들 자신의 미학적·사상적 선택을 정교하게 엮은 결과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분석 연구는 ‘번역가들은 각자 자신이 세운 계획에만 충실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그 계획에 의거한 일관적인 선택을 보여 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¹⁸

이 연구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모든 번역은 불가피하게 차이를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번역가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각기 다른 사실,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는 점이다.

번역 비평

앙투안 베르만(Antoine Berman)의 유명한 이론인 ‘왜곡이 일어나는 13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번역 비평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그의 관점이 원어주의자(sourcier)였다는 점과,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비난하던 ‘왜곡’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겠다.

번역문에 원문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베르만은 번역되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번역은 두말할 것 없이 나쁜 번역이라고 말한다. 장르네 라드미랄(Jean-René Ladmiral)과 위대한 번역가인 조르주 악튀르 골드슈미트(Georges-Arthur Goldschmidt)는 정반대의 의견을 표한다. 골드슈미트는 최근 그의 저서 『안내인의 기쁨』에서 ‘독자들은 속지 않는다. 독자들이 글을 읽으면서 번역된 것 같다고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번역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나쁜’ 번역의 정의에 대한 합의는 요원한 실정이다.

또한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과연 좋은 번역, ‘훌륭한’ 번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대개는 번역된 작품이 원작의 문학적 특성,

의미의 일관성, 미학적 수준, 통일성을 그대로 구현해낼 때 성공한 번역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문화소

문화소는 문화적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의미 단위를 말한다. 루마니아 출신의 조르지아나 룬구-바데아(Georgiana Lungu-Badea)¹⁹의 연구에 따르면, 번역 작품의 출발어와 도착어의 문화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화적 고유성은 가장 번역하기 까다롭고 난해한 것이다. 번역가들은 도착어에 나타나는 문화적 기준들을 통합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전략을 세운다.

영성한 번역물, 돌려 말해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번역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영뚱하게 번역된 문화소이다. 퀘벡 주 독자들은 이러한 번역을 빈번하게 접하고는 한다. 프랑스에서 번역·출간되는 미국, 캐나다 작품을 보면 아무리 훌륭한 번역가가 작업했다 해도 북미가 지닌 현실적 특성을 왜곡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그들이 붙어는 완벽하게 구사하지만 북아메리카의 고유한 문화적 현실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F.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의 소설 『5와 10』의 불어판에는 ‘다임 스토어(dime stores)’라고 불리는 할인매장이 미국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프랑스 마트 ‘프리쉬닉(Prisunic)’으로 번역되었는데, 퀘벡 출신 번역가라면 그 시대에 그런 종류의 상점들을 ‘5 10 15’로 불렀던 점에 착안해 등가 표현을 찾았을 것이다.

메릴린 프렌치(Marilyn French)의 소설 『여성의 방 *Toilettes pour femmes*』에서는 ‘down at the Sunoco station’이라는 구문이 ‘수노코 주유소(à la station-service Sunoco)’가 아닌 ‘수노코 역(à la gare de Sonnoco[sic])’으로 번역이 되었다. 그런데 Sunoco는 주유소명이자 철도 역명이 아니다. Canadian Tire라는 대형 마트의 경우도 캐나다 사정을 잘 아는 번역가라면 굳이곧대로 ‘캐나다 타이어(Pneus Canada)’로 번역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상점들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dépanneur’라는 작은 식료품점들 ‘crèmerie (유제품 상점)’로 번역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¹⁷ Judith Lavoie, “Mark Twain et la parole noire” 2002,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p.224

¹⁸ *Ibid.*, p.212

¹⁹ V. 「문화소 개념에 대한 주석 *Remarques sur le concept de culturème*», Translationes, n°1-2009, p: 15-78

이 같은 ‘문화적 현실에 무딘 번역’ 중에서 압권은 모르데카이 리클러(Mordecai Richler)의 소설 『바니스 버전 *Le monde de Barney*』이다. 이 소설에서는 ‘추기경(Bishop) 거리’가 희한하게 ‘주교(Evêque) 거리’라는 어색한 명칭으로 바뀌거나, 몬트리올의 ‘아이들(gosses)’이 ‘고등학교(lycée)’를 다닌다고 번역되어 있다(실제로 캐나다의 불어에서 *gosse*라는 단어는 고환을 의미하며, 프랑스와 달리 퀘벡에서 고등학교를 *lycée*라는 명칭으로 부르지 않는다).

프랑스 번역가들에게 있어 스포츠 분야의 문화소는 더 심하게 꼬여진 실타래와 같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유명 아이스하키 선수인 모리스 리차드(Maurice Richard)는 로켓(Rocket)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이는 불어권에서도 마찬가지다. ‘Maurice la Fusée Richard’라는 번역은 많은 비웃음을 샀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면, 캐나다 국민스 포츠인 하키의 우승 트로피 이름은 ‘스탠리 컵(Coupe)’이지 ‘스탠리 잔(tasse)’이 아니다.

프랑스 번역가들의 경우, 북미 작가들의 작품들을 번역할 때 그들 고유의 언어적·문화적 느낌들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프랑스계 캐나다인과 공동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감수만 거쳐도 오역을 저지르는 실수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번역 협업이 필요하다.

부조화

문화소에 대해 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조화’에 대해 언급할 수 밖에 없다. 역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부조화(*disparate*)는 라틴어 ‘*disparatus*(다른, 정반대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부조화는 원문과 대등하지 않은, 몰상식, 비일관성, 문체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몇몇 번역문에서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부조화가 많이 나타나는 번역문은 원문에 비해 언어, 문체, 어조가 일관적이지 않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모순적이거나 서로 다른 어조의 혼용, 부적절한 용법의 사용으로 인해 의미상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시대착오적이거나 고풍스런 표현, 일관성 없는 어휘와 문체 그리고 잘못된 구어와 방언도 부조화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면 호메로스 시대의 느낌을 살리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번역가는 어울리지 않는 어조들을 혼용할 우려가 있다. 즉 현대어, 무훈시 같은 영웅서사시의 언어, 고전 비극에서 쓰이는 귀족 언어, 봉건시대의 어휘 등을 섞어 사용하는 경우이다. 조르주 무냉(Georges Mounin)은 “부조화에 대한 무감각은 오래도록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박식

한 번역가들도 이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어 하나의 의미에 사로잡혀 전체적인 의미를 잃고 만다.”²⁰고 말했다. 『부정한 미녀들 *Belles infidèles*』의 저자인 그는 부조화를 ‘번역 기술의 커다란 결함’²¹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함은 출발어의 영향을 받게 되는 많은 번역문에 큰 타격을 주었다.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는 번역에 있어서 ‘혼돈스런 다양성’을 지양하고, ‘표현의 통일성을 유지’²²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문학 번역에서의 부조화에 관해 2007년 방대한 양의 구체적인 예문을 실은 연구 논문을 발표 한 바 있다.²³ 이 논문은 Academia.edu²⁴ 사이트에서 프랑스어로 「La notion de «disparates» et la critique des traductions」, 영어로 「Criticizing Translations : the Notion of Disparity」의 열람이 가능하다.

작가이자 번역가

문학 번역 세미나에서 번역의 기술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작가들의 담화에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발레리 라르보(Valery Larbaud)²⁵,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José Ortega Gasset)²⁶, 알베르 뱅수산(Albert Bensoussan)²⁷, 이브 본느프와(Yves Bonnefoy)²⁸, 실비 뒤라스탕티(Sylvie Durastanti)²⁹,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³⁰, 피에르 레리스(Pierre Leyris)³¹와 같은 저명한 현대 작가들은 번역에 관한 글을 쓰기도 했다.

²⁰ V. 『부정한 미녀들 *Les Belles infidèles*』, c1995, Lille,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1994, p.99 원문에서 강조
²¹ *ibid.*, p.80
²² 『번역의 여러 가지 방법 *Des différentes méthodes du traduire*』, trad. A. 베르만, C. 베르너 (A. Berman, C. Berner), 1999, Paris, Seuil, 1999, p.61
²³ 전문지 『SEPTET』 1호, 2007, p. 141-164
²⁴ <https://uottawa.academia.edu/JeanDelisle/Articles-Papiers>
²⁵ 『성 히에로니무스의 기호 하에 *Sous l'invocation de saint Jérôme*』, Paris, Gallimard, p.341
²⁶ 『번역의 고통과 영광 *Misère et splendeur de la traduction*』, 장이브 마송(Jean-Yves Masson) 발문, 프랑수아 제알(François Géral) 번역, Paris, Les Belles Lettres, 2013, p.121
²⁷ 『나는 반역했음을 고백한다. 번역에 대한 수필 *J'avoue que j'ai trahi. Essai libre sur la traduction*』, Paris, l'Harmattan, 2005, p.207
²⁸ 『번역가 사회 *La communauté des traducteurs*』, Strasbourg, Presses Universitaires de Strasbourg, 2000, p.147
²⁹ 『번역의 찬사. 번역가의 메모 *Eloge de la trahison. Notes du traducteur*』, Paris, Le Passage, p.135
³⁰ 『번역 경험 *Expérience in Translation*』, trad. 알라스테어 맥이웬(Alastair McEwen), T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135
³¹ 『번역가의 방 *La chambre du traducteur*』, Paris, José Corti, 2007, p.288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문학 번역가에게 그의 저서 『배신당한 유언들』은 필독서나 다름없다. 쿤데라는 “번역가에게 최고 권위는 작가 고유의 문체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번역가들은 ‘아름다운 프랑스어’³²의 보편적인 권위를 따르고 만다. (중략) 이들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것을 떠올리며 ‘반복’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탄식했다. 이를테면 자동적으로 반복을 피하려 들으로써 ‘작가 고유의 문체’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카프카(Kafka)와 같은 몇몇 작가들은 반복을 통해 선율을 느끼게 하는 요령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호라티우스(Horace)는 그의 시론에서 “좋은 것은 반복해야 한다(Bis repetita placent)”고 말했다. 반복은 즐거운 것이다.

인명과 지명

그렇다면 많은 경우 번안을 하게 되는 문학 번역을 할 때 인명과 지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여기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주어를 번역할 때 특히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미셸 발라르(Michel Ballard)의 훌륭한 저서인 『고유명사 번역에 관하여: 영불번역 *Le nom propre en traduction : anglais-français*』³³가 그 예를 잘 보여 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고유명사를 번역하지 않는다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의견과는 반대 입장을 취한다. 또한 캐나다 몬트리올 시의 「메타 *Meta*」지와 루마니아 티미쇼아라(Timisoara) 시의 「번역 *Translationes*」지와 같은 학술지들은 이 쟁점을 다룬 특별호를 발간하기도 했다.³⁴

역주

마지막으로 역주³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할까? 이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로 문학 번역 세미나에서 다루어 볼만한 주제이다. 문학 작품에 붙이는 역주의 타당

성 여부에 대해서도 또 한번 견해가 엇갈린다. 역주를 혐오하는 비평가들과 문학 번역가들은 이것을 번역의 실패를 시인하는 것, 즉 ‘번역가의 치욕’³⁶이라고 여긴다. 반면, 블라디미르 나보코프(Vladimir Nabokov)와 같이 역주를 마치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나보코프는 “페이지 아래에서 시작된 역주가 마치 마천루가 하늘을 찌르듯 한 페이지에 꼭 들어차기를!”³⁷이라고 저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용 텍스트³⁸를 번역할 때의 역주는 또 다른 이야기이다. 이처럼 역주도 이견이 많은 쟁점 중 하나이다.

결론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한다. 지금까지 문학 번역에 있어서 역주, 반복의 문제, 좋은 번역과 나쁜 번역의 정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았다. 모든 문학 번역 세미나 혹은 관련 지침서들은 번역가들에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 주는 기회의 장이나 다름 없다. 예를 들면 가끔 왜곡된 번역을 생산하는 수행방식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미학적 선택이라면 그 자체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는 식의 새로운 접근방법도 가능해진다.

개인적으로 문학 번역 세미나는 해결책을 주기보다는 대개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된다. 앞서 간략하게 정의한 몇몇 번역사 속 개념들(번역 전략, 제약, 독사(doxa), 문화소, 부조화)은 본래 번역가들이 극복해야 할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엄격한 태도로 번역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에밀 치오란(Emil Cioran)이 했던 말처럼 “작가와 달리 번역가는 엄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작가의 부족한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에밀 치오란(Emil Cioran)은 “나는 좋은 작가보다 번역가를 더 높이 평가한다.”³⁹고 말했다. 번역가의 어깨가 무겁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³² 『배신당한 유언들 *Les testaments trahis*』, Paris, Gallimard, 1993, p.133 원문에서 강조

³³ Gap, Ophrys, 2001년, 231p.

³⁴ 『고유명사번역 *La traduction des noms propres*』, 『메타 *Meta*』지, vol. 51, n°4, 2006년, p.621-738 ; 『고유명사의 번역 가능성 *Traductibilité des noms propres*』, 『번역 *Translationes*』지, n°3, 2011년, p.13-212.

³⁵ V. 자클린 앙리(Jacqueline Henry), 『박학에서 실패까지: 번역가의 메모 *De l'érudition à l'échec : la note du traducteur*』, 메타 *Meta*지, vol. 45, n°2, p. 227-240. V. 『번역 방법론 *La traduction raisonnée*』, 3판, 2013년, p. 283-293.

³⁶ 도미니크 오리(Dominique Aury), 『서문 *Préface*』, 조르주 무냉(Georges Mounin)의 『번역 이론의 문제점 *Les problèmes théoriques de la traduction*』, Paris, Gallimard, 1963년, p. XI.

³⁷ 블라디미르 나보코프(Vladimir Nabokov), 『번역의 문제점: “예브게니 오네긴” 영역본을 통하여 *Problems of Translation: “Onegin” in English*』, 파티잔 리뷰(*Partisan Review*), vol. 22, n°4, 1955년, p.512. Notre traduction.

³⁸ V. 『번역 방법론 *La traduction raisonnée*』, 3판, 2013년, p.283-293.

³⁹ 에밀 미셸 치오란(Emil Michel Cioran), 『카이에 *Cahiers*』, 1957-1972년, Paris, Gallimard, p. 387.

이번 문학 번역 세미나는 논쟁거리인 번역 메커니즘을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이지, 번역하는 방법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정하고자 개최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술라이어마허(Shleiermacher)의 유명한 저서를 번역한 크리스티안 베르너(Christian Berner)도 “번역이란 규칙을 따르되, 그 규칙들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다.”⁴⁰라고 말한 바 있다. 십여 개의 규칙 또는 ‘지시 사항’에 끼워 맞춰 복잡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은 우스운 일임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상투적인 논거, 자명한 이치들을 담아 놓은 모음집이 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문학 번역을 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세미나 목표들을 서열화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무리 쉽표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있고, 이 주제가 논의 중에 자주 언급된다 하더라도 이를 주요 논제로 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세미나 일정에 문학 번역가들이 겪은 직업적 현실에 대한 논의 시간을 포함시키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출판사 방문, 출판 계약 내용, 인세, 근무 환경, 작업 네트워크의 장점, 번역가 전문협회의 유용성,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외의 다른 쟁점들을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문학 번역가는 단지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일종의 삶의 방식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was received on 5 March 2015; received in revised form on 3 April 2015; and accepted on 8 April 2015.

Author's email address
jdelisle@uOttawa.ca

About the author

Jean Delisle is an emeritus professor of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Ottawa University where he was a professor from 1974 to 2007. He is the author of History of translation, La traduction raisonnée, Translators through history, La traduction en citations, La terminologie au Canada, etc. His research areas include translation studies, History of translation, literary translation,

⁴⁰ 크리스티안 베르너(Christian Berner), 『번역의 경향 *Le penchant à traduire*』, 술라이어마허(Shleiermacher)의 『번역의 다양한 방식 *Des différentes méthodes du traduire*』, 크리스티안 베르너 Christian Berner 옮김 Paris, 1999년, Seuil, p.18.